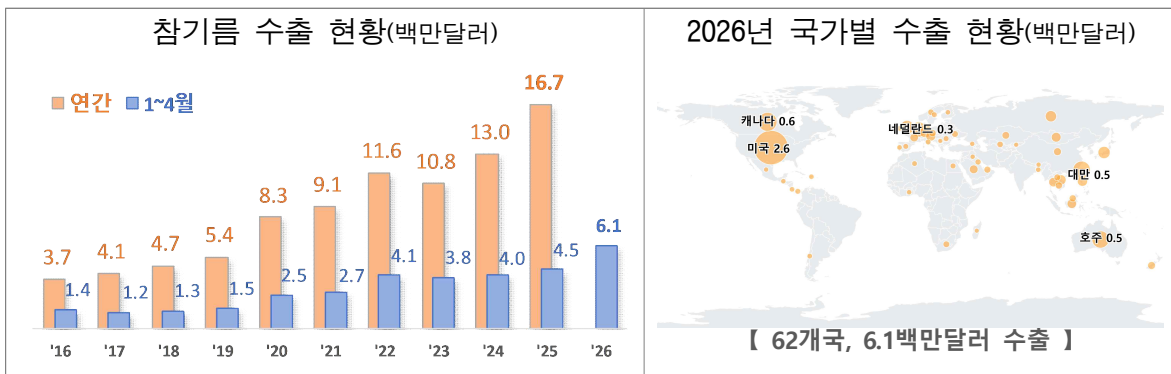


세계 입맛 사로잡은 K-푸드 숨은 주역 한국 참기름

- 2026년 1~4월 수출 역대 최대 기록 ... '24~'25년 이어 올해도 고공행진 -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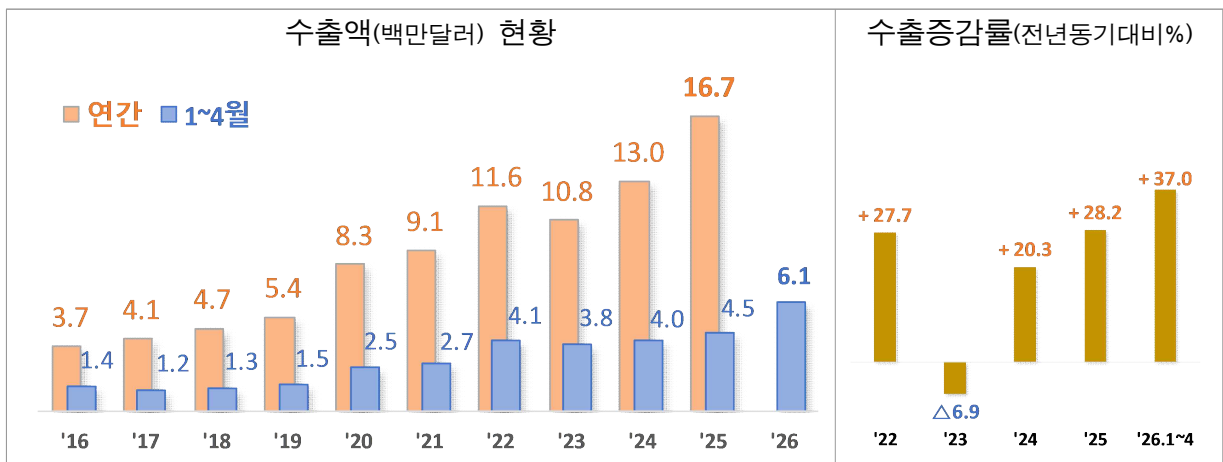
- ◇ (현황) 2026년 1~4월 참기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7.0% 증가한 614만 달러(약 92억 원), 수출 중량은 +47.6% 증가한 657톤을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 ◇ (요인) 전 세계적인 '건강 식단' 열풍 속 식물성 오일(Oil) 수요 증가와 K-푸드 인기에 따른 필수 소스(Sauce) 동반 구매 효과가 주요 수출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 * 비빔밥 등 한식 조리 마지막에 참기름을 곁들이는 것이 서구 식단에서 샐러드나 생선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끼얹는 것과 유사한 음식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
- ◇ (국가) 최대 수출국인 미국(+170.8%↑)과 캐나다(+249.0%↑)가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51.3%)을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호주·네덜란드 등 신흥 거점을 포함한 총 62개국으로 시장을 넓혀 가고 있다.



담당 부서	정보데이터정책관 데이터담당관	책임자	과 장	강경훈 (042-481-7790)
		담당자	사무관	박정률 (042-481-7845)
			주무관	이선호 (042-481-3263)

□ (현황) 2026년 1~4월 참기름 수출액 614만 달러(+37.0%↑),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 기록

- 2025년 K-푸드 수출이 역대 최대인 114.6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 참기름 역시 2024년 1,301만 달러(+20.3%↑), 2025년 1,668만 달러(+28.2%↑)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에 이어 올해도 가파른 성장세
 - 특히, 올해 1~4월 수출 증량은 657톤(+47.6%↑)으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 수입금액으로는 5년 만에 약 2.2배* 증가한 것
- * '21년 2.7백만 달러 → '26년 6.1백만 달러
- 한식 고유의 맛을 내는 '필수 소스'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확보하며 'K-푸드 차세대 유망 품목'으로 안착



□ (요인) ①건강 식단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②K-푸드와 동반 구매

① 건강 식단 수요 증가 및 샐러드용 고급 드레싱 소스로 안착

- 채식 등 건강한 식단을 선호하는 선진국 소비트렌드 하에서, 최소화된 열처리와 화학적 첨가물이 없는 K-참기름에 대한 수요 증가
- 특유의 고소함과 깊은 풍미가 샐러드나 채식 요리의 맛을 완성하는 고급 '피니싱 오일(Finishing Oil)'로 현지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면서, 미국 등 주요국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급증

* "Why Toasted Sesame Oil is Best For Adding A Finishing Touch To Dishes"(Tasting Table, '24.12.29)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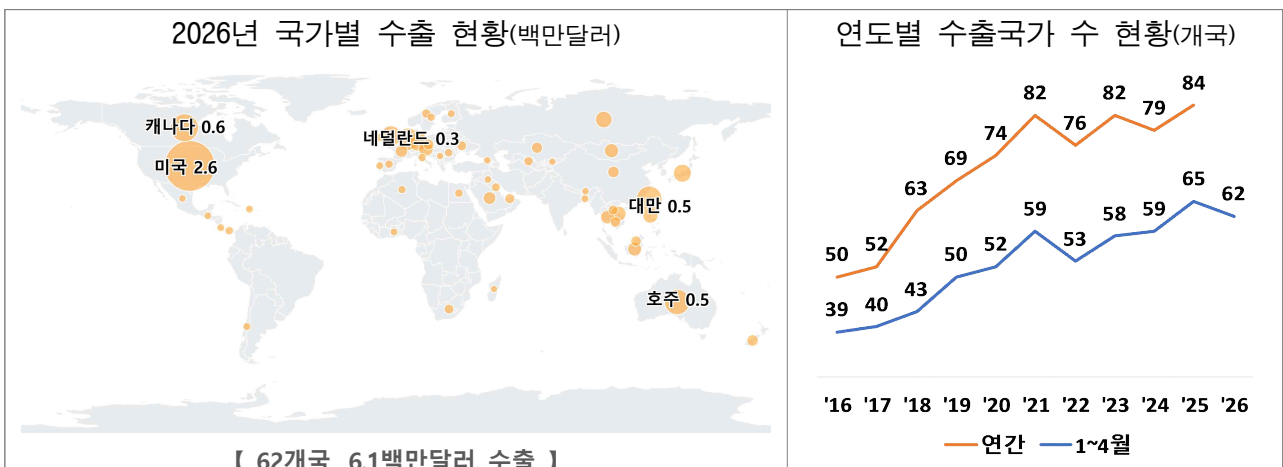
- 비빔밥 등 한식 조리 마지막에 참기름을 곁들이는 것이, 서구 식단에서 샐러드나 생선요리에 올리브 오일이나 드레싱 소스를 끼얹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음식 문화로 거부감 없이 정착
- 특히, 유기농, 할랄(Halal), 코셔(Kosher) 등 까다로운 품질 인증을 획득하고 현지 식습관에 맞춘 튜브형 포장 등을 도입
- 유명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현지 대형마트 등 프리미엄 유통 채널에 진입하며 실수요 확보에도 성공

② K-푸드 인기 상승에 따른 필수 소스 동반 구매 효과

- 라면('25년 15.2억 달러), 소스류(4.1억 달러) 등 K-푸드 수출 급증으로 높아진 한식 인지도가 참기름 구매로도 연결
- 짧은 영상(숏폼) 등 K-콘텐츠를 통해 한식 조리법을 접한 외국인들이 가정에서 직접 요리를 시도하며,
 - ‘한식 경험 확대 → 조리 시도 → 고유의 맛을 내기 위한 필수 소스(참기름) 구매’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동반 구매 구조 정착

□ (국가) 미국·캐나다 수출 증가, 호주·유럽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

- (현황) 2026년 1~4월 기준 참기름 주요 수출국은 미국(2.6백만 달러, 비중 41.7%), 캐나다(0.6백만 달러, 9.6%), 대만(0.5백만 달러, 7.6%), 호주(0.5백만 달러, 7.4%), 네덜란드(0.3백만 달러, 5.3%) 순
- 최근 5년간 매년 80개국 안팎의 국가로 수출



- (북미) 건강식 및 아시안 요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미국 (+170.8%↑)과 캐나다(+249.0%↑)로의 수출이 큰 폭 증가
 - 최대 수출국인 미국은 2013년 이후 14년 연속 1위를 기록,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13년 34.0% → '26.4월 41.7%)
- (호주) 2025년 전년대비 +167.9% 상승한 2.3백만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4월 기준으로도 +29.7% 상승하며 증가세 지속
- (유럽) 네덜란드(+59.9%↑)를 비롯해 2024년에 크게 성장했던 영국('24년 +255.2%↑) 등 고급 건강식 수요가 높은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추세 뚜렷
 - 올해 1~4월 유럽 시장 수출액도 +42.7% 상승하여 역대 최대인 0.7백만 달러를 기록

<국가별 수출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순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1~4월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1위	미국	3.8	0.3	미국	3.8	△0.2	미국	4.3	14.0	미국	6.5	48.7	미국	2.6	170.8
2위	호주	1.1	140.9	대만	0.8	3.1	영국	1.4	255.2	호주	2.3	167.9	캐나다	0.6	249.0
3위	캐나다	1.1	132.3	호주	0.8	△25.0	대만	0.9	15.2	대만	1.3	41.4	대만	0.5	△18.5
4위	대만	0.8	73.0	캐나다	0.7	△32.7	호주	0.8	5.0	영국	1.0	△30.9	호주	0.5	29.7
5위	일본	0.5	147.0	네덜란드	0.6	36.9	네덜란드	0.7	21.4	네덜란드	0.6	△23.2	네덜란드	0.3	59.9
기타	71개국	4.4	24.1	77개국	4.1	△7.3	74개국	4.7	16.7	79개국	5.1	7.4	57개국	1.7	6.7
	전체	11.6	27.7	전체	10.8	△6.9	전체	13.0	20.3	전체	16.7	28.2	전체	6.1	37.0

* 밑줄은 해당 기간별 역대 최대 수출액을 나타냄

□ **참기름 수출 현황 (1~4월)**

(단위: 백만달러, 톤, 전년동기대비 %)

연도	수출액		수출 중량		연도	수출액		수출 중량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01년	0.1	97.4	45.0	171.6	2014년	0.7	86.4	74.6	135.1
2002년	0.3	95.1	75.4	67.4	2015년	1.0	46.4	108.0	44.8
2003년	0.02	△90.4	21.4	△71.6	2016년	1.4	47.0	162.6	50.6
2004년	0.1	191.6	10.3	△51.9	2017년	1.2	△13.8	130.6	△19.7
2005년	0.1	△17.7	11.7	13.3	2018년	1.3	8.9	163.4	25.2
2006년	0.1	55.5	14.3	22.3	2019년	1.5	13.2	167.8	2.7
2007년	0.1	6.2	10.6	△25.6	2020년	2.5	65.6	300.2	78.9
2008년	0.1	48.1	13.7	29.3	2021년	2.7	10.7	318.1	6.0
2009년	0.2	55.0	32.8	138.6	2022년	4.1	48.5	430.1	35.2
2010년	0.2	△21.3	18.1	△44.6	2023년	3.8	△6.8	362.9	△15.6
2011년	0.5	178.9	85.0	368.7	2024년	4.0	5.7	379.4	4.6
2012년	0.3	△37.4	35.9	△57.7	2025년	4.5	11.9	445.1	17.3
2013년	0.4	12.6	31.7	△11.7	2026년	6.1	37.0	656.8	47.6

□ **참기름 수출 현황 (연간)**

(단위: 백만달러, 톤, 전년동기대비 %)

연도	수출액		수출 중량		연도	수출액		수출 중량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01년	0.4	76.4	132.6	116.1	2014년	2.9	98.4	384.3	158.6
2002년	0.3	△20.8	103.3	△22.1	2015년	2.8	△3.4	305.3	△20.6
2003년	0.2	△51.6	55.8	△46.0	2016년	3.7	31.1	429.3	40.6
2004년	0.1	△9.3	24.0	△57.0	2017년	4.1	11.1	483.4	12.6
2005년	0.4	199.4	111.0	363.2	2018년	4.7	14.5	596.7	23.4
2006년	0.4	△4.8	78.8	△29.0	2019년	5.4	13.6	615.9	3.2
2007년	0.6	30.3	73.5	△6.7	2020년	8.3	54.9	971.5	57.7
2008년	0.5	△3.9	48.3	△34.3	2021년	9.1	9.6	1,134.6	16.8
2009년	0.7	39.8	91.2	88.8	2022년	11.6	27.7	1,247.0	9.9
2010년	0.9	22.8	111.8	22.6	2023년	10.8	△6.9	1,040.5	△16.6
2011년	1.2	36.5	182.3	63.0	2024년	13.0	20.3	1,290.3	24.0
2012년	0.9	△29.3	85.6	△53.1	2025년	16.7	28.2	1,768.9	37.1
2013년	1.5	67.4	148.6	73.6					